

“중소형주·달러貨 추천… 3년이하 대출은 변동금리로”

재테크가 **희망**이다

(2부) ① PB가 추천하는 재테크

금리인상 등 금융환경 다변화
자산형태·재테크 점검 필요

올해 국·내외 시장 환경 변화가 예상되면서 재테크 기류도 바뀌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7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의 금융 정책으로 투자·대출 유형도 변화하는 추세다.

시중은행 재테크 전문가들은 “2018년은 추가 금리 인상,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가계부채 대책 등에 따라 시장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돼 자산형태와 재테크에 대한 점검은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채권보다 ‘주식’ 뜬다

4일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자산관리전문가(PB)들은 올해 금리 인상이 본격화됐다고 분석하고 현 시점에서 예금보다 채권, 채권보단 주식이 유망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KEB하나은행 클럽원 PB센터 이성이 PB부장은 “미국에 이어 한국도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금리상승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올해도 2~3년 정도 기준금리 인상이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이 부장은 “금리 상승기에 채권 가격이 하락하므로 채권투자는 투자 방향을 짧게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기예금보다 단기물 위주의 채권 투자가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김현섭 PB팀장은 “2018년 채권은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 기준금리 인상과 중앙은행 보유자산 축소 계획에 따라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보유 비중 축소를 제안했다.

(은행 PB가 말하는 2018 재테크방법)

/각사

	KEB 하나은행 이성이 클럽원PB센터 PB부장	신한은행 김영웅 PWM목동센터 팀장	KB 국민은행 김현섭 도곡 스타PB센터 PB팀장	우리은행 김희경 독섬역지점 PB팀장
구분				
추천 투자 유망상품	국내 중소형주 4차산업·로보틱스 테마주 외화통화(달러, 유로화)	패시브 투자(코스닥130ETF) 다만, 조정시 분할 매수하거나 목표투자금액 분할 매수	ELS, 달러 ELS 국내 중소형주 펀드 대출 채권	하이일드채권, ELT 美·中 관련 펀드
항목별 추천 투자비중	단기물 위주의 채권투자 유리 주식, 펀드 수익률 상승 경향	(안정성향)정기예금·1년 미만채권 50%, ELS 30%, 신항국·국내주식형펀드 20% (공격성향)은 정기예금/1년미만채권 30%, 국내주식형펀드 20%, 원자재펀드 10%, 신항국주식형펀드 20%, ELS 20%	채권 보유 비중 축소 주가 상승세지만 경기과열 신호, 자산가치 하락 대비 포트폴리오 투자 추천	해외 하이일드 채권 30%, ELT 40%, 주식형펀드 30% 주식형 펀드는 미국, 중국, 국내 주식 위주로
대출관리	3년이상 장기대출은 고정금리 3년이하 단기대출은 변동금리	대출 통한 레버리지 투자 지양 투자보다 대출상환 우선	3년 이하 대출 또는 중도상환 계획있으면 변동금리 추천	변동금리대출 고정금리로 전환 신규대출은 정책지원, 우대금리 검토

이와 달리 주식 시장에 대해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신한은행 PWM목동센터 김영웅 팀장은 “올해는 코스닥시장에 대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시행 및 기관의 수급으로 인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스닥 투자 방법으로는 ‘패시브 투자(코스닥150 ETF)’를 추천했다.

김 팀장은 “개인투자자들은 종목선정과 매수 타이밍 잡기가 어려워 투자성과가 반드시 플러스(+)일 가능성은 낮다”며

서도 “다만 최근 이런 기대감으로 코스닥 지수가 10년 내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조정 시 분할 매수하거나 목표투자금액을 분할해서 매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성이 PB부장은 주식 중에서도 국내 중소형 주식과 4차 산업관련주를 투자 유망상품으로 꼽았다.

이 부장은 “글로벌 매크로 확장 및 기업 실적 호조세, 배당성향 확대 기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기대감으로 중소형주 중심의 국내 주식 투자가 유리해

보인다”며 “특히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4차 산업, 로보틱스 테마의 장기적인 투자 전망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펀드 분산 투자… 대출은 변동금리로

투자 분산 시엔 투자 성향에 따라 해외 채권, 국내주식형펀드 등을 적절히 배분할 것을 조언했다.

우리은행 독섬역지점 김희경 PB팀장은 “미국중심 글로벌 경제의 안정적 성장으로 기업이익이 개선되고 부도율이 낮아지면서 투자 부적격 채권에 투자하는

해외 하이일드 채권(고수익·고위험 채권)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해외 하이일드 채권 30%, ELT(주가연계신탁) 40%, 주식형펀드 30%의 투자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중 주식형펀드는 미국, 중국, 국내주식 위주의 투자를 권유했다.

김영웅 팀장은 안정 성향의 투자자에게는 정기예금 혹은 1년 미만의 채권 비중을 50%, 대안투자라 불리는 ELS(주가연계증권)를 30%, 달러약세로 경기호조가 예상되는 신흥국 또는 국내주식형펀드 비중을 20%로 제안했다.

공격성향의 투자자는 정기예금 혹은 1년 미만 채권 비중 30%, 국내주식형펀드 20%, 물가 및 경기 상승 기대로 인해 원자재펀드 10%, 신흥국 증시에 투자하는 펀드 20%, ELS 비중 20%를 제안했다. 그는 “다만 주식투자에 있어서는 종목선정의 어려움과 업종 대표주가 이미 상승한 상태에서 추격매수에 대한 부담으로 간접투자인 펀드위주 투자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대출 관리에 대해선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를 지양하고 단기 대출은 변동금리가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김영웅 팀장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과 금리 인상기 등을 감안해 여유자금이 생긴다면 투자보다 대출 상환에 우선해야 한다”며 “장기 주택대출의 경우 확정금리형 대출로 옮기되, 단기간에 매도할 예정이라면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감안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섭 PB팀장은 “현재 변동금리와 5년 고정금리의 차이는 약 0.7%포인트에 불과하고, 당분간 금리가 큰 폭으로 인상될 것”이라며 “대출자금을 3년 이하로 사용할 계획이거나 중도 상환 계획이 있다면 고정 금리보다 변동 금리를 추천한다”고 제안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애플 이어 인텔도… 위기의 글로벌 IT기업들

세계 PC 90% 탑재된 ‘인텔 CPU’, 성능 절반으로 ‘뚝’

치명적 보안 문제 확인… 해킹 우려
인텔 “데이터침해 발생 가능성 없어”



1,8세대 인텔® 코어™ i7 프로세서.

세계적 반도체 기업 인텔의 PC 중앙처리장치(CPU)에서 치명적 결함이 발견됐다. 인텔 CPU를 사용하는 모든 PC들에 상당한 성능 저하가 우려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인텔의 CPU에서 치명적 보안 문제가 확인됐다. 커널 메모리 정보가 메모리 덤프 시 누출되는 증상으로, 보안이 필요한 운영체제 주소공간 등의 정보가 외부로 공개된다는 것. 인텔 CPU를 사용하는 PC 모두가

해킹에 극도로 취약해지는 셈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오랜기간 이어진 인텔 CPU의 고질적인 하드웨어 결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출시된 2세대 CPU(샌디브릿지)부터 지난해 출시된 8세대 CPU(커피레이크)까지 i3, i5, i7 등 모든 라인업 CPU 제품이 해당된다.

이러한 보안 문제는 운영체제(OS) 업데이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리눅스는 이미 이에 대한 업데이트가 나오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업데이트는 오는 9일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이 보안 업데이트를 적용할 경우 CPU에서 심각한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드웨어 결함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완벽한 해결이 불가능하다. 때문

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문제가 되는 부분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비용을 들이면 5층짜리 건물의 5층에서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균열 현상이 발생하자 5층과 4층을 폐쇄하고 3층까지만 사용하는 식이다.

때문에 파일시스템 입출력(I/O) 성능은 절반 가까이 떨어지며 컴파일러 벤치마크 중 이니셜 셋업항목에서 15%, SQL 등 데이터베이스 관련 벤치에서 15% 성능 저하가 나타났다. 현재 업데이트를 마친 리눅스 기반 PC에서는 최종적으로 5~30% 수준의 성능 손실이 발생했다. 인텔 CPU와 NVMe SSD를 조합

한 경우 50% 수준의 하락이 관측됐다. NVMe SSD는 차세대 규격을 사용한 저장장치로, PC와 직접 통신하는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다. 고성능 PC가 필요할 경우 사용한다.

이번 성능저하가 문제되는 것은 최근 10년 동안 인텔 CPU가 세계 시장에서 93%에 달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정부, 기업, 민간 등 세계 각지의 PC 사용자들이 성능 저하로 인한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한편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텔은 “버그나 결함이 아니다. 데이터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한다”면서도 “관련 업데이트가 제공되는 즉시 적용하라”고 밝혔다. 이어 “인텔 외의 업체들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인텔은 업계에서 가장 뛰어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세성 기자 sesung@

“국내 은행 ‘바젤Ⅲ’ 도입으로 BIS비율 소폭 상승”

국제은행 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의 도입으로 국내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바젤Ⅲ 규제 개편안과 관련해 17개 국내 은행이 현재 자산구성 유지를 가질 경우 이들의 BIS 비율은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진국 은행 대비 비교적 저위험

자산 위주로 구성된 일부 대형은행의 BIS 비율이 상승했다.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바젤Ⅲ는 은행 자산의 신용위험 측정 방법을 차등화해 위험자산 보유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저LTV(주택담보인정비율) 대출과 같은 저위험 자산의 위험가중치(RW)는 낮아지고, 주식이나 펀드 투자와 같은 고위

험 자산의 RW는 높아진다.

은행이 보유한 대출이나 투자자산 등의 RW 차등 폭이 커지면서 적정 수준의 BIS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경영전략을 일부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금융원은 이번 규제개편이 은행 내부의 리스크 관리방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이행시기도 집중된 만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향후 업무추진 일정)

(자료=금융감독원)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규제 개편 설명회 개최							
2 리스크별 T/F 구성 및 운영							
3 규제 개편 영향분석 실시							
4 공개협의를 발표 및 세칙개정							
5 규제 시행전 검증기간 운영							
6 은행 자체 리스크 모형 승인·점검							

바젤Ⅲ가 국내 은행 운영 환경에 맞게 도입될 수 있도록 최초로 ‘공개협의안’ 절차를 시행하며,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에 전문가를 파견해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엄현정인턴기자 smahn1@